

2019년을 함께한 G-Friends의
활동과 성장에 대한 이야기

**BE
INSPIRED**



**& BE
PROUD**



GKL사회공헌재단 발행
뉴솔루션 위음

01 인사말

02 G-Friends 장학사업 소개

사업 추진배경
지원대상
선정절차 및 혜택
지원인원 현황
G-Friends 활동 소개
후원 및 수행기관 소개

03 G-Friends의 의미와 가치 그리고 변화

장학생들이 생각하는 G-Friends 의미와 가치
그리고 G-Friends로 선정된 후 변화 소개

04 2019년 G-Friends 활동에 관한 이야기

2019년 G-Friends로 활동한 장학생들의 성과 및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 소개

05 2019년 G-Friends 활동을 마무리하며

2019년 한 해 동안 G-Friends 장학생으로 활동한 소감

<2019 G-Friends> 이야기 발간 인사말

미래세대의 꿈과 희망을 지원하는 GKL과 GKL사회공헌재단의 'G-Friends 장학사업'이 어느덧 3년이 지나 4년차를 맞이했습니다. G-Friends 장학사업은 관광 분야에 특화된 장학금으로서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G-Friends 장학생들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스스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며 사회를 변화시키는 능동적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를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는 스스로의 성장과 사회변화를 위해 도전하고 있는 우리 G-Friends들의 이야기가 담겨있습니다. 소소한 일상 속의 이야기부터 자신들의 꿈과 희망이 담긴 솔직한 이야기들까지 다양한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지치고 힘든 순간에 직면했을 때, G-Friends로서의 경험이 큰 힘이 되어주길 바랍니다. 또한 미래의 G-Friends를 꿈꾸는 학생에게는 유용한 안내서가 되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GKL과 GKL사회공헌재단은 G-Friends 장학사업을 통해 우리 미래세대가 꿈과 희망을 키우며 성장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GKL사회공헌재단 이사장 나 종 민

본 책자는 2019년 한 해 동안
G-Friends 장학생으로 참여한 학생들과의
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개인 액티비티

각각의 G-Friends가 자신의 성장을 이루기 위해 수행하는
재능기부, 어학역량강화, 기타역량강화 등의 활동들입니다.

팀 액티비티

4-6명의 G-Friends가 한 팀을 이루어서 다양한 사회적
가치 실현을 목표로 수행하는 프로젝트입니다.

ABOUT G-Friends

G-Friends의 G는 'Global'을 의미합니다.

G-Friends 장학사업은 GKL과 GKL사회공헌재단의 인재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G-Friends는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우수한 대학생 및 대학원생을 발굴하여 지원합니다.

G-Friends에는 다음과 같은 국내외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관광계열 G-Friends 장학금

국내 관광계열 대학 및 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

글로벌 G-Friends 장학금

국내 인문계열 대학 및 대학원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

* GKL과 GKL사회공헌재단의 해외공헌사업과 연계된 해외 대학의 학생들도 지원하고 있으나 2017년 선정인원에 한하여 지속 지원하고 신규선발은 하지 않습니다.

* 보다 자세한 사항은 G-Friends 홈페이지(www.g-friends.org)를 참고해 주세요.

G-Friends 선정절차 및 혜택

G-Friends로 선정되면 차별적인 혜택이 제공됩니다.



지원내용

관광계열 G-Friends 장학금

졸업 시까지 등록금 전액

졸업 시까지 매 학기 연구활동지원금 100만원 지급

G-Friends 액티비티 지원

글로벌 G-Friends 장학금

졸업 시까지 매 학기

연구활동지원금 300만원 지급

G-Friends 액티비티 지원

지원내용

관광계열 G-Friends 장학금	35명	총인원	90명
글로벌 G-Friends 장학금	30명		
해외 G-Friends 장학금	20명		

G-Friends 활동 소개

G-Friends는 선정 후 진행되는 액티비티를 통해 GKL 및 GKL 사회공헌재단과 함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해 나아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G-Friends가 실현하고자 하는 사회적 가치란

개인의 이해관계를 넘어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해 지향해야 하는 가치를 의미합니다. G-Friends는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해 나가면서 단순 장학금 수혜자를 넘어 사회를 변화시키는 능동적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요 활동 분야

인권보호, 사회적약자 배려, 지역활성화 및 공동체 복원, 환경의 지속가능성 보전 등

개인 액티비티

G-Friends 개인이 자신의 성장과 사회적 가치를 실현을 이루기 위해 수행하는 재능기부, 어학역량강화, 기타 역량강화 등의 활동입니다.

팀 액티비티

4~6명의 G-Friends가 한 팀을 이루어서 다양한 사회적 가치 실현을 목표로 수행하는 팀 단위 프로젝트입니다.

G-Friends 기자단이란

기자단에 관심 있는 G-Friends를 대상으로, GKL 및 GKL 사회공헌재단 관련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장학생의 관점에서 르포 기사를 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후원 및 수행기관 소개

G-Friends 장학사업은 2016년부터 후원 및 수행기관들의 협력을 바탕으로 Collective Impact를 창출해나가고 있습니다.

GKL

GKL은 관광산업의 선두 기업이자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된 공기업으로, 외국인 전용 공공카지노 운영을 통해 외국인 관광객 유치와 청년 일자리 창출 등 관광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GKL사회공헌재단

GKL사회공헌재단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의 공익법인으로 GKL이 100% 출연하여 설립되었습니다. 매년 GKL 총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출연 받아 국내외에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뉴솔루션은 공익적 목적을 지닌 기관들의 성공적 운영을 위한 해결책(Solution)제시를 위해 설립된 비영리조직입니다. GKL사회공헌재단과 함께 G-Friends 장학사업, 중국 우수아동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G-Friends란?

장학생들이 생각하는 G-Friends의 의미와 가치 그리고 G-Friends로 선정된 후 변화를 소개합니다.



나에게 G-Friends는 자신감입니다

G-Friends는 저의 자신감입니다. 지원 전, 대외활동에 연이어 탈락하면서 자신감이 떨어진 상태였기 때문에 장학생으로 선발될 것이라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4기 G-Friends로 선발된 이후 G-Friends는 항상 저의 자신감을 북돋아주는 원동력으로 작용하였습니다. G-Friends의 지원이 헛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성장해야겠다고 다짐을 하게 되었고, 여러 대회에 참가할 때 항상 G-Friends 장학생이라는 책임감과 자신감을 가지고 임했습니다. 성과를 내지 못해 좌절하기만 했던 예전과는 달리, 결과를 받아들이고 더욱 더 나를 발전시켜 나가는 자세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또한, 과거에는 제 자신에게 투자하는 것만으로도 버거울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는지 돌아보며, 작은 도움을 실천하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나만을 생각하던 '전혜경'을 이제는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전혜경'으로 변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G-Friends는 제 인생의 한 챕터입니다

흔히들 사람의 인생을 한 권의 책으로 비유하곤 합니다. 삶의 여러 부분 중 중요한 것들은 한 챕터가 되고 책에서 많은 이야기를 차지하게 되겠죠. 제 삶을 한 권의 책이라고 했을 때, 그 책의 많은 부분을 G-Friends가 차지한다는 생각합니다. G-Friends는 기회였고 동시에 또 다른 기회로 이어지는 열쇠였습니다. G-Friends가 되기 전에는 모든 기회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도전이 필요하고 도전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책임을 질 능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더 많은 기회를 잡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G-Friends는 제가 다른 기회를 향해 충분히 손을 뻗을 수 있도록 현실의 짐을 덜어가 주었습니다. 금전적인 것뿐만 아니라 시간적인 여유가 생겨 늘 듣고 싶었던 어학 수업을 들을 수 있게 되었고, 교환학생 준비도 잘 마치고 현재는 해외로 나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간 안에 어학능력을 향상시키고 인턴을 통해 더 많은 경험을 쌓을 것입니다. G-Friends가 되면서, 금전적인 문제로 중단해야했던 봉사활동도 재개할 수 있었고, 팀 액티비티를 하며 사회에 기여하는 시간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특히 게릴라 가드닝 활동을 하며 맘 흘려 쓰레기를 치우고, 화분을 정비하고, 그렇게 바뀐 장소를 보았을 때의 뿌듯한 감정을 절대 잊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의 챕터가 결코 책을 전부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책의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챕터는 분명 존재합니다. G-Friends가 된 것은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 시간과 기회가 있었기에 제가 더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른다면 언젠가 저 또한 누군가에게 소중한 시간과 기회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G-Friends는 저의 새로운 터닝 포인트입니다

타국에서의 유학생살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니다.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어야 했고 새로운 문화를 익혀가야 했습니다. 많은 것들에 적응해야 했고, 그로 인해 조금은 지칠 수밖에 없었던 첫 학기가 끝날 무렵 저는 G-Friends를 만났습니니다. G-Friends를 만나면서 저의 대학원 생활 중 많은 부분이 변했습니다. 부모님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었고, 내가 선택한 이 길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G-Friends를 통해 저는 2019년 한 해 많은 것을 새롭게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나눔이라는 주제로 팀을 이루어 진행했던 ‘향기 나눔 프로젝트’는 세계 공유의 가치를 새롭게 배울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폐향수를 새로운 고체방향제로 업사이클링 할 수 있는 방법을 체험부스를 통해 일반 시민들에게 가르쳐드렸을 때 나의 작은 봉사가 누군가에겐 행복한 추억과 경험이, 또 환경보호를 다시 각인시키는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뿐만 아니라 G-Friends 친구들과 함께한 꿈희 망여행을 통해 서로의 고민과 일상을 공유하면서 혼자가 아닌 함께 라는 것을 깨닫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지난날 G-Friends와 함께한 소중한 시간들을 발판으로 2020년에도 더욱 의미 있는 일들을 해보려고 합니다. 당연히 현재 진행 중인 제 연구에 대해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할 것이고, 더불어 G-Friends 친구들과 새로운 도전을 계속 시도할 것입니다. 그렇게 저는 ‘나는 누군인지’ 그리고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에 대한 답에 한발 더 다가가는 그런 보람찬 한 해를 보내고자 합니다.





G-Friends는 든든한 길잡이입니다

G-Friends는 제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과 목표를 실현하도록 이끌어 주는 든든한 길잡이입니다. G-Friends를 만나기 전, 저는 각종 공모전과 대외활동에 참여하면서 열심히 살고 있다는 안도감을 느끼며 지내왔습니다. 사실 이런 제 활동들은 관광이라는 전공 활동에 집중되어 있었고, 어느 순간부터 비슷한 경험이 반복되며 성장이 정체된 느낌을 받았었습니다. 하지만 G-Friends로 선발되면서 나의 활동들을 하나하나 기록하다 보니 자연스레 매 학기 나의 생활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고, 무조건 많은 활동을 하는 것 보다 구체적인 계획을 통해 부족한 점을 채워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처음 장학생이 되었던 2018년, 제 활동의 모든 방향이 관광지 개발에 초점이 맞추어진 공모전, 산학협력, 학회 등에 참여하는 것이었습니다. 반면 올해는 부족했던 어학공부와 지금껏 계속 미루던 봉사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고 전공과 융합할 수 있는 타 산업군과 관련된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견식을 더욱 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G-Friends를 통해 받은 혜택들은 단순히 장학금, 다양한 경험의 획득만이 아닙니다. 스스로 성장하며 더 의미 있는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그 어떤 것으로도 환산할 수 없는 큰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를 잊지 않고, 제가 받은 혜택들을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매 순간 노력하는 G-Friends가 되고 싶습니다.





G-Friends는 꿈을 향한 징검돌입니다

G-Friends는 제가 꿈을 향해 한 발, 한 발 자신 있게 내디딜 수 있도록 해주는 징검돌입니다. G-Friends가 되기 전까지 저에게는 학업 외의 활동에 시간을 투자하는 것에 대해 망설임이 있었습니다. 시골에서 상경하여 대학을 다니고 있기에 거주비와 생활비로 많은 금액이 지출되고 있었기에 학교 등록금만큼은 제 힘으로 충당하고 싶어 성적장학금을 목표로 과제, 시험공부와 같은 학업에 물리적, 정신적 노력을 쏟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좋아서 시작한 연극동아리 활동을 할 때마다 ‘이 시간에 이걸 하고 있어도 되는 걸까? 이럴 시간에 공부하는 게 낫지 않을까?’와 같은 생각에 사로잡히기도 하였습니다. 결국엔 성적에 대한 저의 맹목적인 태도에 스스로 회의감이 들기도 하였고, 학업 외의 활동은 시작하기조차 망설이는 겉쟁이가 되어버리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던 와중 큰 용기를 내어 G-Friends에 지원하였고, G-Friends가 된 것을 시작으로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작게는 하루의 생활 방식부터 크게는 이십 대를 보내는 방법이 달라졌습니다. 우선, 전공 학업을 대하는 저의 태도가 ‘점수를 위한 공부’에서 ‘꿈을 향한 탐구’로 바뀌었습니다. 전공 교재 속 내용을 외우기 급급했던 전과는 달리, 교재 속 흥미로운 부분을 놓고 교수님과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눠보기도 하고, 팀 과제를 하던 중 관심이 가는 부분이 있으면 과제와는 별개로 더 파고들기도 하는 등 성적에 포함되는 공부 외에 학업에 들이는 시간을 아까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또한, 제 꿈의 한계를 깨부수어 주었습니다. G-Friends를 통해 시간에 대한 용기가 생기면서 동아리 활동, 강연 및 행사, 대외 활동 등에 자신 있게 참여할 수 있었고, 그 과정에서 제가 저의 진로를 전공인 ‘컨벤션’에만 한정 지어놓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함께 하는 사람과 나누는 작은 대화부터 온 열정을 쏟아 부는 큰 활동까지 모든 것이 제게는 배움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 일이, 할 수 있는 일이 정말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G-Friends가 놓아주는 징검돌을 밟고, 제가 원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아내기 위해서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의 다양한 일들에 두려워하지 않고 거침없이 도전하고 싶습니다.



G-Friends의 의미와 가치 그리고 변화



G-Friends는 든든한 소나무입니다

G-Friends는 저에게 소나무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맘을 뻘뻘 흘리며 아르바이트를 하던 제가 G-Friends라는 그늘에서 맘을 말릴 수 있었고 또 쉬어갈 수 있는 여유도 생겼습니다.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휴학을 고민하고 있던 시기에, G-Friends는 저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제가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G-Friends와 함께한 2019년 한 해를 돌아보면 참으로 보람찬 일들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팀 액티비티를 진행하면서 새로운 분야에 대해 알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한 걸음 더 성장한 것 같아 뿌듯했습니다. 또 팀원들과 함께 기획부터 결과물 발표까지 모든 과정에 참여하면서 저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었고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고 이해하는 것의 중요성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개인 액티비티에 있어서, G-Friends로 활동하는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재능기부를 2년간 지속할 수 있어서 정말 뿌듯했습니다.

G-Friends는 장학생들이 쉬고 갈 수 있는 그늘이며, 쉼 속에서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주었습니다. 장학금만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학생들이 직접 사회적 가치에 대해 생각해보고 그것을 실천하도록 격려하고 지원해주면서 저희들의 성장과 발전에 큰 힘이 되어주었습니다. 앞으로 저도 누군가의 그늘과 버팀목이 되어 누군가의 꿈을 응원해주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G-Friends는 보약입니다

제게 G-Friends는 보약입니다. 가끔 지치고 힘들 때 마시면 힘이 나듯, 학업과 생활적으로 힘들 때 항상 제게 도움을 준 G-Friends는 정말 보약 같았습니다. G-Friends를 알기 전에는 학업이외의 대학원 조교, 아르바이트 등 하느라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학교 게시판에 붙어있는 G-Friends 모집 포스터를 보게 되었고, 운이 좋게 합격하여 G-Friends의 일원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G-Friends를 만나 가장 많이 변한 것은 저의 생활패턴입니다. 등록금과 연구활동 지원금을 지원받아 학교조교,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고도 학업에 집중할 수 있던 것이 제일 좋았습니다. 학업에만 집중하다 보니 성적도 향상되고, 나아가 자기계발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져서 자격증 및 각종 대외활동에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 생겼습니다. 또한, G-Friends가 되면서부터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특히 다른 G-Friends와 함께 했던 팀 활동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는 의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시작 전 걱정이 많았지만, 팀원들과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면서 결과적으로 나눔대축제에 참여하여 부스 운영 및 시민을 대상으로 원데이 클래스를 직접 진행 할 수 있었습니다. 제게 새로운 힘을 불어준 G-Friends에게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G-Friends는 한국 유학생들의 하이라이트입니다



G-Friends 장학금 덕분에 많은 외국인 유학생이 경험하지 못하는 활동들을 할 수 있었고,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들 수 있었습니다. G-Friends는 단순히 학비나 연구활동지원금을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라 장학생들이 발전을 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다른 장학금과 다른 G-Friends 장학금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시도를 할 때 잘 할 수 있을까 고민이 많았던 제가 이제는 자신감이 생겼으며, G-Friends 이름을 부끄럽게 만들지 않기 위해 스스로 노력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생활적인 부분에서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벗어나게 되어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평소 하고 싶었던 여러 대외활동에 참여하며 시야를 넓힐 수 있었습니다. 학업적인 부분에서는 전공 공부 이외에도 어학능력을 향상할 수 있었고, 지속지원 심사 덕분에 현 상황에 정체되지 않고 도전을 멈추지 않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G-Friends는 저의 한국 유학생들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G-Friends는 제게 더불어 사는 삶의 가치를 알려준 계기입니다

GKI사회공헌재단의 G-Friends 장학금은 다른 보통의 장학금과는 그 본질이 달랐습니다. 대학 생활을 하며 어학능력과 자기계발을 하게끔 해주고, 무엇보다 재능기부와 같이 제 주변을 돌아보고 더불어 사는 삶의 가치를 몸소 실현하게 해주었습니다. 특히, 제가 속한 팀은 사회적 가치 실현 프로젝트는 '결혼이주여성 회고록 제작'이었습니다. 평소 우리나라에 사는 외국인의 삶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저는 사회적 약자라 할 수 있는 결혼이주여성들의 회고록을 제작하는 프로젝트에 큰 매력을 느꼈습니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실제로 중국, 필리핀 등 다양한 국가에서 온 결혼이주여성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진행하고, 그들의 삶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인터뷰를 진행할수록 대학생생활을 하며 과제, 팀 프로젝트, 어학공부와 같이 제 주변보다는 개인적인 역량 강화에만 집중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워졌습니다. G-Friends 장학금을 통해 주변에 소외된 이웃들을 돌아볼 수 있었고, 더불어 사는 삶의 가치를 알게 되었습니다. G-Friends 면접 최종 합격 문자를 받은 2019년의 어느 날, 그 날의 뿌듯함과 기쁨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 감정이 무색해지지 않도록, 앞으로 G-Friends를 통해 더불어 사는 삶의 가치를 몸소 실천하고 싶습니다. 에게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G-Friends는 개성 넘치는 친구입니다

‘커스터마이징’ 서비스는 개성을 반영할 수 없는 완제품과 달리 나의 취향에 맞춰 제품을 만들어주는 서비스입니다. G-Friends도 커스터마이징 서비스처럼 많은 우수한 학생들의 취향과 특징을 반영하여 그들에게 맞는 장학금을 줌으로써 개인의 개성을 살린다는 측면에서 기존의 장학금과는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G-Friends는 한 가지만 중요시 하며 특별한 개성이 없던 저의 생각을 바꿀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학업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일원으로써 대인 관계를 넓히고, 많은 문화를 직접 경험하고 자원봉사를 통해 학교에서 배울 수 없는 많은 것들을 가르쳐주었습니다.

G-friends 장학생이 되어 경제적인 부분에서 도움을 받은 것은 물론이고, 여러 가지 기회의 문을 통해 스스로를 계속 성장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특히 G-friends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그 목표를 이루어 나갈 수 있었습니다. 단순 개인의 목표만이 아니라 팀과 함께 “같은 마음 같은 목표”를 향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은 저에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우수한 인재가 되어 계속 사회에 필요한 가치들을 창출하고 기여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나에게 G-Friends는 후추통입니다

G-friends는 제게 후추통과 같은 존재입니다. 수료식 때 저는 본인을 대표하는 단어로 '후추'를 지정한 바가 있습니다. 다른 이들에게 도움이 되고 재미가 되며 음식에서도 빠지면 아쉽듯이 모임에서도 빠지면 아쉬운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G-Friends는 이러한 후추와 같은 본인을 상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흩어지지 않게 모아주는 후추통과 같습니다. 그 이유는 G-Friends가 저를 올바른 상태로 있을 수 있게 많은 부분에서 도움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G-friends를 만나기 전까지는 항상 바쁜 일상에 치이며 지냈습니다. 알바와 학업을 병행 하였으며,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 저의 발전을 위한 시간을 투자하기 어려웠습니다. 알바를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는 것은 곧 학업에서의 소홀해짐을 의미합니다. 장학금을 받기 전에 알바와 학업을 병행했던 1학기 저의 성적에 비해 오로지 학업에 전념한 지금은 성적이 더욱 향상되었습니다.

G-Friends를 만나면서 학업에 집중할 수 있었고, 원하던 자격증과 시험 등을 경제적 부담 없이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동안 아르바이트 때문에 포기해야 했던 대외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G-friends와 함께 다양한 지원을 받으면서 본인의 후추 같은 영향력을 다양한 분야에 뽐내 볼 예정입니다.





G-Friends는 새로운 학업생활의 길을 알려준 이정표입니다

군 휴학 이후 2년 만에 다시 시작한 학업 생활은 저에게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2년 만에 다시 시작한 경영수학, 마케팅 이론 등의 강의에서 제가 원하는 수준의 학점을 받기 위해서는 그 이전보다 더 큰 노력을 필요로 했습니다. 아르바이트와 원하는 수준의 학점 취득을 위한 병행에 지쳐갈 무렵 G-Friends을 알게 되었고, 서류와 최종면접을 거쳐 G-Friends가 되었습니다. 이후 저는 이제 온전히 학업생활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게 G-Friends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제가 만약 G-Friends를 알지 못했다면, '이렇게 온전히 학업 생활에 집중하고 학점 취득 이외의 어학, 자격증 공부 등을 마음 편히 할 수 있었을까?' 라는 생각을 종종 하곤 합니다.

또한 올해 G-Friends 활동을 하면서 팀 액티비티로 게릴라 가드닝에 참여했고, 개인 액티비티로 봉사활동과 자격증 취득을 하면서 성장의 밑거름을 다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인재로 거듭나기 위해 계속 도전하고 싶습니다.





G-Friends는 저의 드림 주유소입니다

G-Friends와 함께한 2019년은 소중한 응원과 격려로 크고 작은 여러 변화를 통해 제 자신이 성장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G-friends의 지원으로 경제적 걱정을 덜 수 있어서 공부와 자기개발을 할 수 있었습니다. 평소 공부하고 싶던 분야의 스터디 모임에 참여했고, 학술대회와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또한 팀 액티비티 활동을 하면서 다른 G-Friends들과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저의 행동력과 소통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다른 팀원들의 장점을 통해 저의 부족한 점을 반성하게 되었고, 항상 자신감을 가지고 각자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할 때 큰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꿈이 있으면 찾아가라, 응원해 줄게, 자신감을 가져'라는 G-Friends의 응원은 2019년 한 해 동안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되었습니다. 단순한 경제적 지원이 아니라 드림 주유소처럼 GKL사회공헌재단과 G-Friends 담당자 분들 덕에 더욱 의미 있는 한 해를 보낼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저에게 G-Friends라는 소중한 선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G-Friends는 동반자입니다

G-Friends는 저의 대학생활의 든든한 동반자입니다. 대학생으로서 살아가다 보면 여러모로 신경 써야할 것들이 많습니다. 일명 '스펙'에서부터 학점, 인맥, 비용 등 말이지요. G-Friends를 만나기 전까지의 저는 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신감이 떨어지곤 했습니다. 그러나 G-Friends를 만난 후 저는 G-Friends의 응원과 지원에 힘입어 더욱 알차게 대학생활을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혼자서 준비하기에는 자신감과 추진력이 부족한 제가 G-Friends와 함께 하며 스펙을 하나하나 쌓아갈 수 있었고, 학점관리에 더욱 충실해졌으며, 다른 G-Friends들과 함께 팀 액티비티를 하며 소중한 추억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특히 G-Friends의 응원 덕에 저는 이번 학기 개인 액티비티 활동에 더욱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개인 액티비티의 일환인 어학능력강화 활동으로 토플 점수를 따내었으며, 그 덕분에 교환학생의 신분으로 미국의 Walt Disney World로 인턴을 하러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 관광 서비스 산업의 선두 그룹에서 일하게 된 만큼, 많은 것들을 보고 배워서 한국으로 돌아가 G-Friends와 같이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의 동반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나에게 G-Friends는 착한 수호천사입니다

G-Friends는 저에게 항상 도움을 주는 착한 수호천사입니다. 저는 한국어를 잘 못하기 때문에 G-Friends 활동을 포기할까 고민했었습니다. 여러 G-Friends와 G-Friends 담당자님의 도움으로 무사히 졸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G-Friends 만나기 전까지 매일 매일 그냥 학교 다니고, 집에만 있고 다른 생산적인 활동을 전혀 하지 못했었습니다. G-Friends 덕분에 좋은 활동을 많이 할 수 있었고, 다른 G-Friends들과 만나면서 한국어도 정말 많이 늘었습니다. G-Friends 액티비티 활동 덕분에 많은 사람을 만나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고, 이제는 스스로 모든 활동에 자신감을 가지고 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저도 G-Friends처럼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수호천사가 되고 싶습니다.



G-Friends는 나에게 Hello Kitty입니다



어렸을 때 헬로 키티는 사람의 스트레스나 속마음의 얘기를 잘 들어주는 인형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G-Friends 장학생이 지원했을 당시 개인적으로 어려운 일이 많았고, 건강도 좋지 않은 상황이라 한국 유학을 포기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 G-Friends 장학생 합격 문자를 받고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G-Friends 덕분에 지난 학기 공부에 집중할 수 있었고 더 좋은 성적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개인적으로 건강도 정말 많이 좋아졌습니다. 헬로키티는 입이 없는 캐릭터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잘 들어주고 평가하지 않고, 항상 나를 믿고 응원해주는 인형입니다. 마찬가지로 2019년 G-Friends는 제게 헬로키티처럼 나를 평가하기보다는 고민을 들어주고, 저를 믿어주고 응원해준 존재였습니다. 앞으로 저는 G-Friends가 제게 해준 것처럼 개인적인 성공이 아니라 어려운 사람을 돕는, 어려운 사람들의 꿈을 응원해주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나에게 G-Friends는 이정표입니다

G-Friends는 우물 속 개구리였던 제 삶의 한 획을 그어준 이정표입니다. 항상 '부산', '부산대학교' 그리고 '최소희' 라는 틀 안에 갇혀서 스스로 제한적인 삶을 살아왔습니다. '내가 해봤자 안 될 거 같은데', '이런 활동은 내가 할 수 없는 일 일거야. 그냥 공부나 하자' 라는 생각은 제 자신을 과소평가하게 만들었고 스스로 소극적인 삶을 살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제 꿈을 위한 힘 찬 발돋움을 위해 G-Friends에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의 간절한 바람과 함께 G-Friends 일원이 되었습니다. '나도 할 수 있다' 라는 자신감이 생겼고, 자신감은 제 자신에 대한 확신이 되어 2019년 한 해 동안 이전의 대학생활과 달리 다양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보낼 수 있었습니다. 과거의 저는 여러 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해야 했기에 팀 모임을 일부러 기피했었습니다. 그러나 G-Friends 장학금을 통해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고도 학교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이를 원동력으로 저는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다양한 팀에 속해 공모전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저는 공모전 대상을 수상하는 큰 성과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G-Friends 장학생이 되면서 되찾은 자신감과 함께 저는 꾸준히 관광학도의 길을 열심히 달려 나갈 것입니다. 앞으로도 저는 G-Friends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G-Friends는 두레박입니다

G-Friends는 우물의 두레박입니다. 세계 2019년 상반기는 정말 힘든 시기였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도 잘 몰랐고, 저 스스로에 대한 의구심도 끊임없이 들었습니다. 때문에 내가 잘 하고 있는지, 앞으로는 어떻게 헤쳐 나가야 할지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으로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던 중 G-Friends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정말 많은 것들이 바뀌었지만 가장 큰 변화는 자신감이었습니다. 저를 믿고 지지해주는 존재가 있다고 생각하니 새로운 활동에 도전할 수 있는 큰 용기가 생겼습니다. 덕분에 다양한 활동들을 하면서 더 깊은 전공 지식을 쌓을 수 있었고, 단순히 학교에 앉아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직접 경험해 보면서 여러 가지 분야의 견문을 넓힐 수 있었습니다. 또한 활동을 하면서 더 배우고 싶은 것들이 생길 때에는 경제적인 부담을 느끼지 않고 망설임 없이 바로 배울 수 있었습니다.

또한, G-Friends들이 팀을 이뤄 활동하는 팀 액티비티는 평소에 깊게 생각하지 못했던 사회 문제들과 사회적 가치를 돌이켜 볼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함께 활동하면서 다양한 이야기들을 나누고 그 과정에서 제 자신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수 있었던 자극제가 되어주었습니다.

우물 속의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한 것은 아니지만, 만약 G-Friends가 함께하지 않았다면, 저는 아직도 우물 안에서 밖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두려움 속에서 걱정만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제가 우물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고 더 넓은 세상이 있다는 것을 보여 준 G-Friends에게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금 같은 생각을 잊지 않고 매사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G-Friends는 비 내리는 날 우산이 되어주었습니다

대학원에 진학하여 생계와 학업을 동시에 책임지다 보니 힘든 부분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G-Friends는 비가 내리는 날 우산 같은 존재로, 길을 헤매던 저에게 큰 힘이었습니다. 등록금뿐만 아니라 연구활동지원금을 통해 제가 학업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었고, 앞으로 가야할 길을 더욱 분명히 해주었습니다. 대학원에서 하는 연구활동들은 학문적으로나 실무적으로나 방대한 지식이 필요했기 때문에, G-Friends 활동을 통해 배운 많은 것들이 학업을 더욱 용이하게 해주었고, 관광학을 전공하는 저에겐 너무 중요한 스펙이었습니다. 특히, GKL 및 GKL사회공헌재단의 G-Friends 장학생으로서 관련 행사들을 직*간접적으로 체험하면서 관광분야의 여러 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었고 나아가 사회공헌활동에도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G-Friends로서 받았던 많은 혜택을 생각하며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알아보고, 사회에 환원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G-Friends는 대학생들의 터닝포인트입니다

저는 G-Friends로 선발된 이후 대학생들의 터닝포인트를 맞이했습니다. 기존에 영어학과에서 어학을 배우다 다른 꿈이 생겨 휴학을 결심하게 되었고, 직접 학비를 마련하여 캐나다 Greystone college에 입학하여 customer service and hospitality 1년 과정을 수료하였고, 제 대학생들의 2막이라고 할 수 있는 편입을 통해 제가 배우고 싶은 관광이라는 전공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G-Friends를 알게 되었고, G-Friends 장학생이 되었습니다. 장학생이 되기 전에는 많은걸 하려다보니 내가 무엇을 집중적으로 해야 하는지 전략적으로 계획을 세워 접근하기 힘들었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나에게 정말로 도움이 되는 활동인지에 대한 확신도 없었습니다. G-Friends 장학생이 된 후에는 같은 꿈을 가진 여러 대학의 G-Friends들과 교류하면서 어떻게 효율적인 전략을 짤 수 있는지 생각해 볼 수 있었고, 그런 전략으로 재능기부, 어학 및 기타역량강화 등 다양한 활동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G-Friends 장학생으로 주어진 등록금과 연구활동지원금은 등록금과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했던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고, 오로지 학교생활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덕분에 학업성적도 향상되었고, 지금까지 할 수 없었던 자격증 취득과 여러 대외활동에도 참여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 활동에 참여하면서 여러 고정관념을 깰 수 있었고, 다양한 사람들의 생각을 들으며 여러 가지 관점에서 생각하는 법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특히 G-Friends Activities는 제 자신을 성장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실천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고, 다른 장학생들과의 사례 공유는 매번 제 자신을 독려하는 자극제가 되어주었습니다. 앞으로도 G-Friends 장학생으로서 주어지는 기회를 내것으로 만들어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는 G-Friends가 되고 싶습니다.





G-Friends는 인생 교수님입니다

저는 G-Friends를 통해서 새로운 세계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G-Friends가 되기 전까지 저의 생활은 매일 알바와 논문, 수업, 과제로 넘쳤습니다. 저도 다른 친구들처럼 유학생활하면서 많은 것을 경험하고 싶었고, 가끔씩 여행가고 싶었지만 비싼 학비와 제 지갑 안에 있는 돈을 생각하면서 하고 싶은 것들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G-Friends가 된 후에 제가 경험하고 싶은 것들을 모두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평소 제가 생각해보지 못했던 경험도 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GKL사회공헌재단의 도움으로 알바를 하는 시간을 줄이고 공부와 번역 실력을 높이는 데에 전념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부산국제영화제의 통역사로도 활동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개인 액티비티와 팀 액티비티를 하면서 한 가지 능력만 키우는 것 아니라 여러 방면에서 시야를 넓히게 되었고, 이로인해 더 많은 기회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렸습니다.





G-Friends는 저의 팀워크입니다

G-Friends 덕분에 흥미롭고 의미 있는 한 해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G-friends 장학금을 받기 전까지 등록금, 생활비의 부담이 커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학교 다녀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부담들을 덜 수 있게 되어 공부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고, 제 스스로의 발전을 위해 더 많은 투자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G-Friends를 통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좋은 프로젝트에 참여한 것이 제일 만족스러웠습니다. 팀 액티비티를 통해 팀워크 능력을 키울 수 있었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보람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활동하는 능력을 배울 수 있었고, 이제는 G-Friends 모두가 저의 팀이 되어 함께 나아가고 있는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G-Friends와 좋은 팀워크를 유지하면서 좋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G-Friends는 소중한 공동체입니다

G-Friends는 저의 소중한 공동체입니다. 먼저 G-Friends 장학금을 통해 학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공부와 연구에 투입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나 새로운 언어를 배우고 새로운 지식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G-Friends는 다른 여러 친구들을 사귈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해주었습니다. 팀 액티비티 프로젝트를 통해 다른 G-Friends 친구들과 가까워 질 수 있었고,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결혼이주여성과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사회적 약자 배려'라는 의미 있는 활동을 통해 즐겁고 보람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G-Friends를 통해 공동체 의식을 느낄 수 있었고, 작은 나의 능력으로 타인을 도와줄 수 있는 것의 큰 보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나에게 G-Friends는 성장판입니다



벌써 G-Friends와 함께한지 2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처음 G-Friends 장학생이 되던 그해에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 친해지고 팀 액티비티에 대한 아이디어를 생각하고 실천하면서 즐겁고 유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시간조율하거나 아이디어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와 어려움도 많이 겪었습니다. 덕분에 2019년, 한 해 동안은 그동안 겪었던 시행착오를 극복해나갔던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더 발전적인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주도적으로 팀 액티비티를 이끌면서, 2019 선발된 장학생들과 새로운 시너지를 이끌어내어 프로젝트가 한층 더 업그레이드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저의 조의 게릴라가드닝은 기존의 화분 보존과 분실문제를 2019년 G-Friends와 함께 이야기하면서 패트병으로 교체하기로 결정했고, 그 결과 분실 위험을 낮출 수 있었습니다. 지속적인 활동을 통한 경험과 다른 팀원들의 작은 아이디어가 모여면서 점점 더 나은 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G-Friends가 없었다면, 이러한 뿌듯함을 느낄 수 없었을 것이고 개인적인 성장의 동력도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G-friends는 저에게 단순히 경제적인 도움만이 아닌 스스로에게 진정한 가치를 부여해주는 성장판입니다. 앞으로는 이 멈추지 않는 성장판을 활용해서 사회를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G-Friends는 저의 고마운 친구입니다



지금처럼 공부하기 좋은 때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인생에서 이토록 확고한 꿈을 가져본 적이 없고, 또한 가장 머리가 열려있는 시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최적의 조건 속에서 학점을 따기 위한 공부가 아니라 꿈을 이루기 위한 공부를 하고자 박사 과정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박사과정은 연구활동을 하는데 비용 많이 듭니다. 논문 투고비, 심사비와 게재비 그리고 한국과 인도 정치학 관련 비교연구를 위한 자료조사를 할 때 비용적으로 큰 부담을 느낍니다. 가족의 재정상태가 좋지 않아 다른 지원을 받을 수 없었고, 아르바이트를 해서 생활비를 마련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G-Friends 장학생으로 선정된 후 연구활동지원금을 사용해서 한국과 인도의 비교연구를 마음껏 할 수 있었고 소논문도 쓸 수 있었습니다. 한국학을 깊이 있게 배우기 위해 역사, 문화, 정치 이론 관련 책을 많이 구매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학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취득 후 인도에 가서 인도인들에게 한국어와 한국의 문화, 사회, 정치사 등을 가르치는 꿈을 이루는 것을 옆에서 도와준 G-Friends는 정말 좋은 친구라고 생각됩니다.

G-Friends 장학생으로 선정된 후 G-Friends 액티비티 프로그램으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다양한 한국학 관련 세미나, 봉사활동 등 참여할 수 있었고 또한 텃밭 활동을 통해 케릴라 가드닝활동 진행했습니다. 처음엔 케릴라 가드닝이 어떤 활동인지 몰랐지만, 활동을 하면서 케릴라가드닝에 대해 알게 되었고 G-Friends 친구들과 지역사회 환경을 보호하는 데 기여했다는 점이 정말 좋았습니다. 특히 평소 관심이 없었던 환경 보호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앞으로도 환경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G-Friends 장학생이 되면서 경험했던 많은 활동들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G-Friends 덕분에 제 자신의 성장을 보며 하루하루를 기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도 누군가를 위해 G-Friends처럼 그런 고마운 친구가 되고 싶습니다.





나에게 G-Friends는 마법사입니다

먼저 G-Friends의 장학금을 통해 저는 스스로 원하던 목표를 위해 한 발짝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시간에 쫓겨 제 스스로에 대해 생각해 볼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학업과 자격증, 대외활동 병행을 위해서 알바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장학금을 받게 되면서 시간적 여유가 생겼고, 이로 인해 관광 쪽으로 계속 나가고 싶어 하는 제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특히 연구활동지원금을 통해 관광업에서 꼭 필요한 언어를 익히기 위해 외국어 학원을 다니며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중입니다. 또한 G-Friends의 활동을 통해 한국의 많은 관광학 전공 학생들을 알게 되어 그들과 따로 만나며 관광 쪽 지식을 계속 쌓아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G-Friends의 팀 액티비티를 통해서 시야를 넓힐 수 있었습니다. 팀 액티비티는 다양한 국적을 가진 친구들과 같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활동입니다. 과거에 저는 외국인들과 소통해야 하는 상황에서 머릿속이 새하얗게 외국인들과 얘기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학생이었습니다. 이러한 점은 저에게 있어서 항상 걱정거리였습니다. 호텔관광경영학과 특성상 추후에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과 소통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G-Friends의 팀 액티비티를 통해 외국인들과 소통하기 위해 노력하고 그 결과 다양한 국적을 가진 사람들과 얘기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로 인해 자신감을 가지고 교환학생을 지원하게 되었으며 2020년은 해외로 교환학생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G-Friends 장학금은 저를 바꿔준 마법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G-Friends가 저에게 마법을 부려준 것처럼 저도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G-Friends는 믿음직한 버팀목입니다

G-Friends는 저에게 희망과 꿈을 포기하지 않게 해준 큰 버팀목입니다.

G-Friends는 앞으로 제가 걸어가게 될, 아직 알 수 없는 이 길 위에서 첫발을 내딛을 수 있게 도와주었습니다. G-Friends와 함께 저는 미래에 대한 확신과 열정을 가지고, 때론 방향을 잃고 헤매더라도 늘 꿈을 향해 전진하는 G-Friends가 되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 유학생생활 5년 동안 여러 아르바이트를 할 수밖에 없었던 제가 올해부터 아르바이트 대신 여러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경험을 가질 수 있었고, 특히 전문지식과 기질을 연마할 수 있는 자기계발에 시간을 할애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G-Friends를 통해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자연스럽게 대인관계의 기술을 배울 수 있었고, 이러한 경험은 앞으로 사회생활을 하는데 있어 큰 도움이 될 좋은 밑거름이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팀 액티비티를 통해 다문화가정의 아이들을 소중함을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되었고, 아이들이 한국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도우면서 보람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2020년도 끊임없는 노력과 적극적인 도전으로 제가 가진 모든 능력을 마음껏 펼치는 한 해를 보내고 싶습니다.



2019 G-Friends 이야기

올 한 해 G-Friends들이 개인 및 팀 액티비티의 일환으로 참여한 다양한 활동들을 소개합니다.



간다! 디즈니

Disney International Program 합격!

평소 간절히 원하던 '디즈니 인턴십(Disney International Program)'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영어 공인인증 시험 성적'이 필요했습니다. 워낙 어렵고 소문난 IBT TOEFL 시험으로 잘 알려져 있었기에 내가 잘 할 수 있을까라는 두려웠고,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이런 생각들 때문에 인턴십에 도전할 해야 할지, 시간 낭비하지 말고 다른 일에 집중해야 할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G-Friends 장학생으로 선발되면서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이 생겼고, G-Friends 장학생으로서 해야 하는 개인 액티비티 활동 중 어학역량강화 활동이 있기 때문에 도전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토플 공부는 다른 어학 시험들에 비해 비용이 비싼데, 장학생으로 선발되면서 지원받은 연구활동지원금을 통해 금전적인 고민 없이 공부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주변의 다른 대학생들에 비해 시간적으로 제게 필요한 학습능력 향상에 집중하여 준비를 할 수 있었고, 결국 원하는 목표 점수를 달성 할 수 있었습니다.



Disney International

Programs:

CONGRATULATIONS!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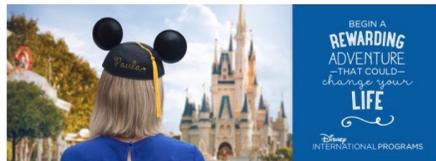


받은편지함



donotreply 오전 12:42

받는사람: 나 ▾



Congratulations!

Dear Briley,

Congratulations! You have been selected to participate in a Disney International Program!

1차적으로 기본 어학시험 성적을 갖춘 뒤 디즈니 인턴십에 지원을 하였고, 세 차례의 영어 면접을 거친 후 최종적으로 합격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목표 점수를 획득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평소 간절히 바라던 곳으로 인턴을 갈 수 있게 되어 정말 뿌듯합니다. 3번의 면접보다도 제게 가장 큰 장애물은 토플 점수를 획득하는 것이었기에, 올 한 해 G-Friends로서 참여한 개인 액티비티 활동 중 토플점수를 획득한 것이 가장 보람되고 기억에 남는 활동인 것 같습니다.

2020년 1월, 저는 디즈니월드의 캐스트이자 교환학생의 신분으로 제가 사랑하는 관광의 이론과 실무를 배우러 미국 플로리다로 떠날 예정입니다. 벌써부터 설레고, 미래에 어떤 일들이 펼쳐질까 정말 기대됩니다. 앞으로도 G-Friends 장학생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미래의 관광산업을 짊어질 인재가 될 수 있도록 도전하겠습니다.

전혜경
동국대학교



6km의 의미

2019 Global 6K for Water in Busan 걷기대회 참여

10월 26일 토요일, 월드컵전에서 개최하는 Global 6K for Water 걷기대회에 참가했습니다. G-Friends 장학생으로 선발된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고민하던 찰나에 매년 경주에서 개최되는 다양한 걷기대회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월드컵전에서 개최하는 Global 6K for Water라는 걷기대회를 알게 되었습니다. Global 6K for Water는 아프리카 아이들이 물을 구하기 위해 매일 걸어 다니는 거리인 6km를 직접 걷고 뛰면서 아이들의 고통을 이해하고, 식수 개선 사업에 도움을 주는 '기부런' 걷기대회입니다.

평소 아프리카 아이들의 식수 관련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저에게 이 대회는 올 해 GKL사회공헌재단의 장학생으로 선정된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최적의 대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대회 참여자들의 참가비용을 모아 아프리카 사업장 마을의 식수시설 마련하고 확충하는 일에 쓰인다는 점이 가장 매력적이었습니다.

참가 신청을 하고 2주 뒤, 기입했던 주소로 제 배 번호가 배송되어왔습니다. 모든 참여자들에게는 아프리카 아이의 사진이 부착된 배 번호가 부여되는데, 아프리카 어린이가 1명씩 랜덤으로 배정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매년 열리는 이 대회는 한 번에 최소 1천 여 명, 최대 2천 여 명이 참여함에도 불구하고, 배 번호에 부착된 아프리카 어린이들이 겹치는 일이 없다는 사실이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대회를 신청하고 당일 이 되기 전까지 '6km 걷는 게 뭐 얼마나 힘들겠어?' 하는 안일한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6km는 생각보다 긴 거리였고, 잘 정리되지 않은 울퉁불퉁한 길을 걷는 것은 힘에 부치는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함께 달리는 다른 참여자들의 배 번호에 부착된 아프리카 아이들의 사진을 보니, 제가 배경 받은 아이만큼 환하게 웃고 있는 아이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보다 훨씬 더운 나라에서 물을 얻기 위해 매일 6km씩 걷는 아이들을 생각하니, 선선한 날씨에서 좋은 옷과 신발을 신고 걸으며 힘들다는 투정하던 저의 옛 모습이 떠올라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전 다시 힘을 내고, 올해 제가 있었던 가장 행복한 일이었던 G-Friends 장학생 선발의 행복이 조금이라도 아프리카 아이들에게 전달되길 바라며 남은 거리를 무사히 완주할 수 있었습니다.

2019년 G-Friends 4기에 선발된 후 짧은 시간이었지만 개인 액티비티, 팀 액티비티 활동 지금까지 쉽게 할 수 없었던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었고, 온전히 제 꿈에 집중하며 도전할 수 있는 최고의 환경이 마련된 것 같습니다. 제가 GKL사회공헌재단의 도움으로 성장할 수 있던 것처럼 저도 누군가의 꿈과 희망을 지켜주고자 1명의 아프리카 아이를 정기후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더 많은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주변을 돌아보며 도움을 나눌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준 G-friends 장학사업에 감사드립니다.



2019년 G-Friends 4기에 선발된 후 짧은 시간이었지만 개인 액티비티, 팀 액티비티 활동 지금까지 쉽게 할 수 없었던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었고, 온전히 제 꿈에 집중하며 도전할 수 있는 최고의 환경이 마련된 것 같습니다. 제가 GKL사회공헌재단의 도움으로 성장할 수 있던 것처럼 저도 누군가의 꿈과 희망을 지켜주고자 1명의 아프리카 아이를 정기후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더 많은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주변을 돌아보며 도움을 나눌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준 G-friends 장학사업에 감사드립니다.

지예화
성균관대학교



국경을 넘은 나만의 미학의 길

Johann Wolfgang Goethe Universität Frankfurt am Main Germany 합격

저는 24년간 출근으로 살아 왔습니다. 그러다가 독일의 철학과 춤의 미학에 빠져 3년 전부터 독일 유학을 꿈꿔왔습니다. 하지만 우리 동양의 철학-예술미학도 제대로 익히지 못한 채 지구 반대편 세상인 유럽, 특히 철학의 본고장인 독일로 간다는 것은 영혼 없이 몸만 동동 떠다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따라서 전 독일 유

2019년 G-Friends 활동에 관한 이야기



Goethe Universität | 60529 Frankfurt am Main
Der Kanzler | International Office

YiHua Chi
c/o
110-6, Choansan-ro 2-gil, Nowon-gu, Seoul, Republic of Korea
01867 Seoul
South Korea

Admission as guest student at Goethe University Frankfurt 10.12.2019

We hereby confirm that YiHua Chi will be registered as a guest student in the: ***summer semester 2020.** **Der Kanzler**

The above named student signed up for the **pre-semester German language course** (in September/ March). Yes.
The course is offered by the "Internationales Studien- und Sprachenzentrum (ISZ)".
Course dates for September are set approx. in July; course dates for March are set approx. in January of each year.
Once dates for the pre-semester German language course have been set, they will be published under
<http://www2.uni-frankfurt.de/44421407/news>.

Semester dates
(The academic year at Goethe University Frankfurt starts with the winter semester.)

- ***WS = Winter semester:** 01 October until 31 March;
- ***SSe = Summer semester:** 01 April until 30 September.

Beginning and end of lecture period: Please visit our website for Exchange and ERASMUS students at
<http://www.io.uni-frankfurt.de/incoming/semesterdates>.



This document is computer-generated and is valid without original signature.
By order Julia Freier
International Office, International Exchange Student Advisor

International Office
BearbeiterIn: Julia Freier
Altzeichen: IO-34

Besucheradresse/
Visitor's Address:
Campus Westend | PEG-
Gebäude
Theodor-W. Adorno-Platz 6
60323 Frankfurt am Main

Postadresse/
Postal Address:
60629 Frankfurt am Main
Germany
Telefon +49 (0)69 798 15080
Telefax +49 (0)69 798 763
15080
freier@uni-frankfurt.de
www.uni-frankfurt.de

학을 위해 먼저 성균관대학교 유학과 동양미학전공 박사과정의 길을 걷기로 결정하였고, 행운처럼 2019년 첫 학기에 GKL사회공헌재단의 글로벌 G-Friend로 선발되었습니다.

특히 이번학기엔 독일 교환학생을 지원해 결국 제가 그토록 원하던 독일로 유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G-Friends 장학생으로 선발되면서 시작하게 된 개인 액티비티 중 어떤 활동을 해야 할지 고민하던 찰나 미뤄왔던 독일 교환학생을 지원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곧바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학교수업과 독일어학시험, 교환학생을 위한 준비와 제 본 전공인 무용공연과 레슨, 체력을 위한 운동을 병행하다보니 중간 중간 '과연 내가 살아서 이번한기를 마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크고 작은 도전들 속에서 원하는 목표를 달성 했을 때 저는 큰 행복감과 자신감 그리고 '꽤' 를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도 바래왔던 2020년 독일교환학생 기간의 제 목표는 제 어학역량과 더불어 동양의 춤미학을 주제로 국제학술지에 논문을 등재할 계획입니다. 이후에는 한국으로 돌아와 박사과정을 잘 마무리 하고 독일에 포닥(디플롬)과정에 지원하고자 합니다. 어쩌면 지금과는 전혀 다른 세상에서 새로운 환경에 직면하게 되겠지만, 지금까지 한결같은 마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차근차근 도전 할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2019년 이 모든 과정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묵묵히 응원해주신 GKL과 GKL사회공헌재단에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GKL사회공헌재단의 글로벌 G-Friends 리더의 일원으로서 열정과 사명감을 마음에 담고 제 꿈을 위해 나아가겠습니다.





UCF(University of Central Florida) 합격!

디즈니인턴십 프로그램 합격

2019년 7월 G-Friends 장학생 합격과 함께 대학생할 중 꼭 해보고 싶었던 인턴십 프로그램에 지원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8월에 경희대학교 호텔관광대학의 디즈니 인턴십 프로그램에 지원하기 위해 토플 시험에 응시했습니다. 학기가 시작하자마자 설명회에 다녀온 뒤 곧장 프로그램에 지원하였고 학점과 지원서, 토플 성적 등을 통해 서류 심사를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1-2주에 한 번 콜로 총 3번의 면접을 가졌습니다. 처음에는 경희대학교 소속 교수님과, 그 다음은 화상 전화로 교환학생을 가게 될 UCF(University of Central Florida)측 교수님들과, 마지막으론 강남에 있는 월트디즈니컴퍼니코리아를 방문하여 디즈니 인턴십 담당자와 면접을 보았습니다. 긴 과정 끝에 현재는 디즈니인턴십 최종합격 후 교환학생으로 떠날 막바지 준비를 위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한, 디즈니 인턴십 프로그램에 지원하면서 영어 회화 실력이 부족한 것을 깨닫게 되었고 미국으로 떠나기 전까지 지속적으로 전화 영어 수업을 진행하며 회화 실력을 향상시켜 나갈 생각입니다. 사실 해외로 인턴십을 가기 위해서는 사전준비 과정에서 생각보다 많은 비용이 필요한데, 저는 GKL사회공헌재단의 G-Friends 연구 활동지원금 덕분에 경제적인 고민 없이 인턴십 준비를 곧바로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있을 디즈니 인턴십이 기대가 되는 만큼 걱정도 많지만, 정말 좋은 기회가 주어진 만큼 꼼꼼히 준비해서 즐겁게 다녀오고 싶습니다. G-Friends가 아니었다면 토플 시험 준비, 응시, 전화영어, 인턴십 프로그램의 비용을 걱정하다 지원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런 걱정 없이 하고싶은 일을 할 수 있게 지원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Congratulations!

Dear Jay,
 Congratulations! You have been selected to participate in a Disney International Program!

You must complete ALL steps listed below within 14 days of the date of this message. If you do not complete all steps within 14 days, we will assume you are declining

김지이
 서울대학교



청춘의 도전

2019 한국국제정치학회 하계학술대회 발표

올해 G-Friends로 활동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은 2019년 7월 한국국제정치학회에서 주최한 하계학술대회에 서울대 SSK 패넬의 발표자로 참석한 것입니다. 그곳에서 저는 "미국 기술패권에 대한 중국의 안보인식"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PC단계에서부터 검색엔진, 그리고 모바일시대 진입까지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애플 등을 필두로 하는 다국적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선보인 글로벌 표준으로 인한 중국 정부의 위협인식 형성과정을 고찰 및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위협인식을 바탕으로 중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관련 기술 분야에서 펼쳤던 대응전략에 대한 고찰과 각각의 대응전략에 대한 특징에 대한 발표를 진행하였습니다. 발표 이후에는 토론자 선생님들과 발표를 들으러 오신 여러 청중 선생님들의 좋은 코멘트를 받았고, 이를 통해 추후 연구를 진행하는데 필요한 유익한 소스들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외교학을 전공하는 학생으로서, 가장 의미 있는 학술대회 중 하나인 한국국제정치학회에서 주최한 하계학술대회에 참여할 수 있어 정말 큰 영광이었습니다. 지난 한 학기동안 수없는 밤샘과 끝없는 수정을 통해 탄생한 논문이 조금이나마 빛을 바랜 것 같아 너무 기뻛고, 또한 해당 패널에서 유일한 유학생로 참석했다는 점은 제 스스로에게 큰 동기부여가 되었습니다. 더불어 학계에서 내놓으라 하는 교수님들과 전문가 선생님들의 예리한 코멘트는 앞으로 진행 할 후속연구에 대한 새로운 관점과 방향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글로벌 G-Friends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다양한 G-Friends 액티비티 활동을 통해 제 자신을 성장시키는 활동을 찾아 적극적으로 참여하겠습니다. 열정적이고 치열했던 지난 6개월에 대한 값진 경험과 추억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권아현
백석대학교



나는야 움직이는 관광안내소 I SEOUL U 움직이는 관광안내소 활동

올해 처음 G-Friends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수여식과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해 G-Friends 액티비티 활동에 대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팀 액티비티의 경우 선배 장학생들이 진행 중인 프로젝트로 편입되어, 프로젝트에 대한 소개와 목적 등에 대해 이해하면서 배워나가면 문제가 없었습니다. 반면 개인 액티비티는 남은 2019년 하반기 동안 재능기부, 어학역량강화, 기타역량강화 활동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스스로 주도적으로 활동을 진행해야 했습니다. 고민 끝에 저는 제 전공에 도움이 되는 활동을 찾아 서울시에서 하는 움직이는 관광안내소 활동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먼저 사전교육을 통해 자원봉사자가 갖추어야 할 마음가짐과 자세에 대해 교육을 받고, 안내를 할 때 사용해야 하는 제스처와 사용하지 말아야 할 단어 등 매뉴얼을 숙지하였습니다. 또한 관광객들에게 건네는 첫인사 등에 대해서도 배우는 시간

을 가졌습니다. 무엇보다 서울시 관광 안내를 담당하는 만큼 서울의 주요 관광지와 각종 랜드마크의 설립계기, 의미에 대해 자세히 배울 수 있었습니다. 교육을 마치고 각자 배정된 구역의 지리와 다양한 편의시설들의 위치, 시설 이용 방법 등을 파악하여 관광지를 찾아오는 내국인 및 외국인 분들에게 담당 언어로 안내하는 활동을 하였는데, 저는 서울시 고속터미널에서 영어로 안내활동을 하게되었습니다.



처음 활동을 시작할 때는 한국말로 안내를 하는 것도 저에게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때문에 외국인 관광객 분들의 입장에 맞추어 다른 나라 언어를 사용하여 외국인 관광객들이 만족할 수 있는 안내를 할 수 있을지 걱정과 두려움이 있었지만, 서울시를 대표하여 관광객들에게 관광을 안내한다는 것에 책임감과 자신감을 가지고 안내에 임하다 보니 안내 실력도 많이 늘고, 영어 회화 능력도 조금씩 높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고속터미널 주변 자체가 넓고 크다보니 길 찾기도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세세한 부분들을 궁금해 하시고 그에 대한 안내를 원해서 당황했던 경우도 많이 있었지만, 안내를 거듭할수록 자연스럽게 상황을 해결하게 되었고 빠른 상황대처능력 또한 기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주어진 시간동안 꾸준히 활동하면서 조금씩 경험을 쌓고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처음에는 GKI사회공헌재단의 장학생이 된 이후 어떤 활동을 또 해야 한다는 것이 조금 부담스러웠지만, 결과적으로는 저의 경험과 전공을 살린 활동을 할 수 있는 계

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활동을 하면서 서울의 여러 건축물들과 전체적인 지리를 파악하는 시간을 통해 무심코 지나치던 건축물들 하나하나의 의미와 역사를 배워가면서 제가 하는 봉사활동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는 즐거운 활동이었던 것 같습니다.



허요윤
성균관대학교



설레는 모험, 교환학생 도전기

독일교환학생 도전

2019년 한 해 동안 제게 가장 기억에 남는 G-Friends Activities 활동은 어학역량강화 활동 중 독일 교환학생에 합격한 것입니다. 오랫동안 계획하고 꿈꿔왔던 교환학생준비를 올해 하반기(8월)에 드디어 직접적으로 준비를 시작했었습니다.

사실 저는 한국에서 현재 중국 유학생의 신분이지만, 늘 동아시아에 머물러 있으며 외국에서 공부한다는 느낌과 설렘을 받지 못한 느낌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대학생활 중 교환학생을 갈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싶었습니다. 막상 처음으로 아시아권에서 벗어나 서양권에서 공부할 준비를 하다 보니 하나부터 열까지 준비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특히, 비자문제가 가장 어려웠는데, 한국에서 유학중인 중국인이 독일 유학생 비자를 발급받는 절차가 매우 까다로웠습니다. 대사관 방문 전

미리 독일 계좌를 개설하여 독일에서 사용할 생활비를 일정 금액만큼 이체하여 증명을 받는 등 공부 외적인 부분의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다음으로 미리 독일 체류기간 동안의 보험과 기숙사를 신청해야 했고, 독일에서 공부하게 될 대학교의 입학허가서와 수강계획을 사전에 세워야 했습니다. 주변의 도움을 받을 만한 곳이 없서 모든 과정을 저는 구글링과 블로그를 통해 정보를 얻어야 했습니다. 이외에도 교환학생을 위해 어학성적을 미리 준비해야 했는데, 촉박한 제출기한에 맞춰 학업과 병행해야 하는 부담감이 매우 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익숙함에 적응되어 가는 저를 되돌아보고, 다시 도전하고 모험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 도전했고, 2020년 1월 독일에 교환학생을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18년 처음 글로벌 G-Friends 장학생으로 선발되고 난 이후에 장학증서 수여식, 집체교육, 연말워크샵 등에서 다른 장학생들의 도전과 성과를 지켜보면서 저 또한 단순히 장학금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도전하면서 저를 성장시켜 나가고, 다음에는 꼭 내가 저 자리에서 다른 장학생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계속 했습니다. 아직은 과정이지만, 2020년 독일 교환학생을 마치고 돌아와 다른 장학생들에게 긍정적인 에너지와 희망을 전달하는 자리에 설 수 있길 기대합니다.





한국어를 넘어 문화와 사회이슈까지 한국어 고급 읽기 수료

G-Friends 장학생이 되어 다른 학생들과 만나면서 한국어 능력을 좀 더 향상시키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국어 능력 향상을 위해 한국어 수업에 등록을 했고, 수업을 통해 한국어 텍스트를 읽고, 분석하고, 발표하는 연습을 한 학기 동안 계속 연습했습니다. 여러 신문을 읽으면서 신문에 나오는 어휘 목록을 정리해 연습하면서 읽기 실력과 말하기 실력이 이전보다 더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특히 주제 및 장르별로 선정된 텍스트를 통해 한국 사회 및 문화에 대해 공부하면서 한국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시간이었습니다.

7월에 GKL사회공헌재단의 G-Friends 장학생이 된 이후, 다른 장학생들과 만나면서 저의 부족한 부분에 대해 되돌아볼 수 있었고, 장학생으로서 해야 하는 활동을 계기로 가장 중요하지만 놓치고 있었던 한국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게 되어 보람찬 한 해를 보낸 것 같습니다. 내년에도 한국어능력과 더불어 즐거운 활동을 찾아 많은 경험을 쌓고 싶습니다.





교육봉사의 첫 단추

서울 동행 교육봉사

2019년 2학기 개강을 맞이하여 서울동행과 연계된 교육봉사를 개인 액티비티 활동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교육봉사를 하기 위해서는 서울동행에서 제공하는 교육 과정을 이수해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동행실천론을 이수하는 것입니다. 동행 실천론을 들으면서 강사님의 교육에 대한 실무 강연과 강의에 참여한 대학생 봉사자 분들과 유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교육봉사에 임하기 전에 자세를 점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유인물과 간식과 강연까지 3박자가 모두 잘 갖춰진 프로그램이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9월부터는 주 2회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하여 알리의 영어 과목을 지도했습니다. 시험기간에는 영어뿐만 아니라 수학, 역사, 기술 등의 타 교과목도 같이 지도했고 대학생들과 장애에 대한 상담도 진행하였습니다.

개인 액티비티를 수행하기 위해 시작한 교육봉사였지만, 3달간의 봉사활동을 통해 어려운 환경에서도 자신의 꿈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방향을 가진 알리를 보면서 내가 정말 하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 고민해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단순히 취업만을 위해 하루 하루를 지내는 것이 아닌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확보한 방향을 결정해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단순히 성적향상이라는 결과만을 중요시하는 과외가 아닌 교육봉사를 통해 저의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를 돕고, 또 그 속에서 저의 삶을 되돌아보며 많은 동기부여를 얻을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기회를 더 많이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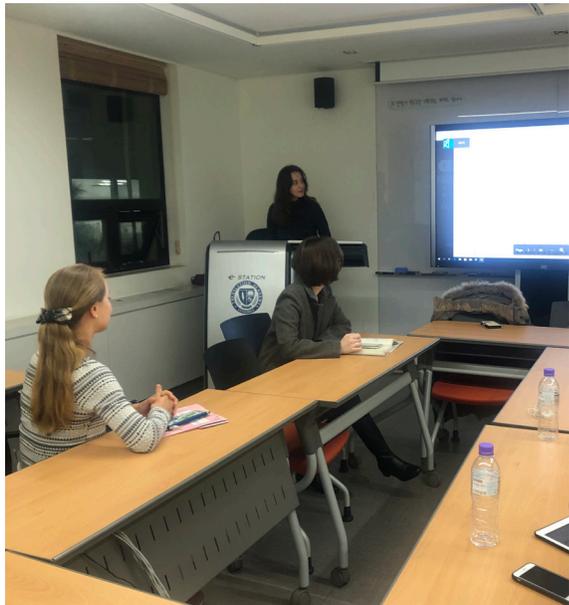




전문번역가로의 발돋움

한국문학번역원 번역 아틀리에 수료

G-Friends 개인 액티비티 활동으로 저는 ‘번역아틀리에’에 지속적으로 참석하여 전문번역가로서의 능력을 키우기 위한 한 해를 보냈습니다. ‘번역아틀리에’는 번역 과정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문제들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여 전문번역가로 활동하기 위한 지식과 경험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저는 2019년 2학기 동안 총 6개의 세미나에 참여하여, 한국 문학작품을 러시아어로 직접 번역하고, 번역과정에서 겪은 어려움을 다른 번역가들과 토론하면서 효율적인 해결방안을 찾는 과정을 배웠습니다. 현재 ‘번역아틀리에’ 과정을 수료한 시점에서 저는 이장욱의 <동경소년>과 <고백의 제왕>이라는 장편 소설 2편을 러시아어로 최종 번역을 하는 성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장편소설을 한국어로 번역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에너지가 정말 많이 소모됩니다. 문장 하나하나의 의미를 정확하게 짚어내고 이를 러시아어로 번역하여 작가가 말하고자하는 바를 정확히 전달하기 위해 계속 고민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한국에서 유학생활동을 하는 저는 G-Friends 장학금 덕분에 오로지 전문번역가가 되기 위한 노력에 시간과 에너지를 집중할 수 있었고, 특히 '번역아틀리에'에서 개최하는 다양한 특강에도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주변의 다른 친구들과 다르게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금전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간을 사용하는 대신, 저는 전문번역가가 되기 위한 활동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매년 저의 번역수준을 계속 높이면서, 다른 여러 번역가들의 의견을 듣고, 다양한 특강을 통해 문학에 대한 지식을 얻으며 영감을 받아 저의 번역능력을 계속 향상시켜 나가고 싶습니다. G-Friends 장학금은 저의 꿈을 이루기 위한 최고의 발판이라고 생각합니다.



홍예린
세종대학교



길, 음식, 호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Red-Angel 통역안내 자원봉사

G-Friends 장학생으로서, 개인 액티비티 활동에 대한 교육을 받고 제가 할 수 있는 활동이 무엇인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같은 G-Friends 장학생인 아현이와 함께 서울시의 움직이는 관광 안내소 활동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같은 곳으로 배정받지 못해 아쉬웠지만, 한국으로 여행을 온 관광객들을 도우

면서 제 전공인 호텔관광경영을 접목시켜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부활동을 통해 관광정보 교육 및 숙지, 외국어 표현을 숙지하는 시간을 가졌고, 외부활동을 통해 외국인과 내국인을 대상으로 관광통역 안내, 주변지리 안내, 동행 안내를 하면서 학문으로 공부했던 내용을 실천 현장에서 적용하면서 앞으로 남은 대학생활 중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보완하며 공부를 해야 할지 생각해볼 수 있었습니다.

혼자였다면 굳이 경험할 생각을 못할 수 있었던 활동이었지만, G-Friends가 되어 다른 G-Friends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여러 가지 정보를 공유하고 다른 G-Friends의 활동모습을 보면서 저도 멈춰있지 말고 계속 새로운 활동을 경험하기 위해 시도해야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남은 기간 중 미래의 관광분야의 전문가로 성장하기 위해 멈추지 않고 걸어가고 싶습니다.





운동으로 극복한 언어장벽

세종대학교 국제교류센터 Global Buddy 활동

2019 G-Friends로 선발된 이후에 재능기부를 위해 학교에서 운영하는 Global Buddy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Global Buddy 활동을 통해 외국인들에게 학교생활을 알려주는 행사(GB OT)와 친목을 다지는 행사(Halloween party)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이 중 가장 기억에 남는 행사는 어린이대공원 풋살경기장을 빌려 외국인들과 같이 풋살경기를 했던 경험입니다. 외국인과 한국인이 섞여서 같이 운동을 하다 보니 처음의 어색함이 사라지고 영어를 다소 못하는 학우들도 자연스럽게 외국인들과 친해지게 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Global Buddy 활동을 시작한 이유는 GKL사회공헌재단의 글로벌 G-Friends 장학생들과 만나면서, 한국인들과 외국인 유학생들이 빨리 친해질 수 있는 계기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출발했습니다. 처음엔 조금 낯설고 어렵지만 작은 계기만 주어진다면 정말 좋은 사람들을 많이 알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저는 다른 행사들과 달리 운동을 통해 한국학생들과 외국인 유학생들이 어울릴 수 있는 활동을 기획하고, 개최하고 실제로 참여하면서 경험을 통해 깨닫게 된 작은 생각이 결과물로 나오는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G-Friends 장학생으로서 다른 장학생들과의 교류를 통해 더 많은 영감을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서울 속 작은 베트남 꽃 피우기 지역아동센터 세계문화체험교실

저는 GKL사회공헌재단의 장학생이 되면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전 반대로 제가 한국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은 어떤 활동이 있을지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유학생으로서 세계문화체험교실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계문화체험교실에서는 국제청년센터의 지원을 받아 외국인 유학생들과 한국 대학생들이 지역아동센터의 청소년, 노인 복지관의 노인, 서울 시민을 대상으로 세계의 다양한 문화를 한국 사회에 알리기 위한 활동을 합니다. 저와 3명 한국인 대학생들이 함께 강북 지역아동센터 <사랑의 공부방>에서 베트남 문화교실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수업의 목적은 5회에 걸쳐 진행되는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들에게 베트남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을 알려주고, 베트남과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매 수업이 끝난 후 간단한 퀴즈를 통해 수업내용을 복습하고, 직접 문화를 체험을 할 수 있는 체험활동을 통해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베트남어 인사법, 베트남 전통놀이, 베트남 음식 등을 한국 어린이들에게 알리고, 함께 체험하면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뿌듯했습니다. 한 예로, 아이들에게 베트남 전통놀이인 Choi Chuyen(한국식 공기놀이)를 소개해 주었는데 그 다음 센터를 방문했을 때 아이들이 너무 재미있어서 학교 수업이 끝나고 매일 공부방에서 Choi Chuyen을 하며 놀았던 이야기를 듣고 정말 큰 보람을 느꼈었습니다.

저는 제가 GKL사회공헌재단의 G-Friends 장학생으로 선발되면서 받은 많은 혜택과 기회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해줄 수 있어, 2019년 한 해가 정말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문우리
한양대학교



범세계적인 가치에 대한 고민 미래세대포럼 참가, 한중일 연계 축제 기획

G-Friends가 되어 다양한 학생들을 만나고, 서로 다른 의견을 나누는 것의 즐거움을 깨달았습니다. 특히,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팀 액티비티 활동을 하면서 비슷한 전공, 혹은 다른 전공의 학생들이 만나 서로 다른 시각을 공유하면 더 큰 아이디어, 더 창의적인 생각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저는 팀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2019 한중일 문화관광 장관회의'에서 개최되는 '미래세대포럼' 공모전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미래세대포럼'은 한국, 중국, 일본의 관광을 공부하는 학부 및 대학원생이 미래의 관광 산업에 대한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자리였습니다. 보통 유럽여행을 하면, 유럽권의 여러 국가들을 연계하며 여행을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는 편리한 통화수단, 교통, 가까운 지리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동아시아 국가는 충분히 가까운 지리적 위치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계 관광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유럽처럼 한국, 중국, 일본을 함께 관광하는 여행객이 늘어난다면 각 나라에 시너지효과를 창출할 수 있지 않을까란 생각을 매번 했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한중일 미래세대포럼이 세 나라가 함께 이러한 고민을 하고 의견을 나눠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였고, 친구들과 같은 고민에 대한 해답을 찾으려다가 제가 혼자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현실적이고 의미 있는 해결책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대학교 친구들과 함께 참가를 결정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았지만, 지금까지 G-Friends로 활동하면서 경험한 팀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한 다양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성공적으로 저희가 원하는 ‘한중일 연계 축제’를 제안하게 되었고, 수상도 할 수 있었습니다. G-Friends 팀 프로젝트를 경험하지 않았다면, 다른 친구들과 함께 공모전에 참가한다는 결정을 쉽게 내리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공모전 수상보다도 삶을 살아가는데 있어 중요한 다른 사람과 함께 하는 방법을 G-Friends를 통해 배울 수 있었던 한 해 였다고 생각합니다.



주연우
경희대학교



세상을 읽는 시각장애인용 E북 제작을 함께하다

시각장애인용 E북 제작 및 입력 봉사활동

G-Friends 개인 액티비티 활동으로 시각장애인들의 독서에 대한 갈증을 해소시켜주기 위한 ‘점자도서 제작을 위한 E북 제작’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19년 8월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활동을 하면서 2020년 2월 5일 기준, 일반 서적(300페이지 기준) 약 7권에 달하는 양의 점자도서 입력 봉사를 진행하였고, 현재까지도 봉사활동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 활동 덕분에 독서를 멀리 했던 저도

책을 읽기 시작했고, 좋은 책이 있을 때는 도서관에서 대여하거나 직접 구매하여 읽기도 합니다. 남을 돕는 봉사활동이 오히려 저에게 더 도움이 되어 앞으로도 이 활동을 꾸준히 진행하려고 합니다.



뜻 깊은 봉사활동을 하는 사람이 저 말고도 많아서 시각 장애인 분들께서 보다 편하게 책과 친해질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지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 봉사자의 한 사람으로써 굉장히 보람을 느낍니다. 앞으로는 마포점자도서관에서 진행하고 있는 점자도서 프로젝트로 영역을 넓혀 보다 더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G-Friends 액티비티 활동 덕분에 제가 좀 더 나은 사회를 위해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이란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언어통역부터 문화소통까지 베트남 교장단 방문 행사 사회 겸 한·베 통역

개인 액티비티 활동 중 재능기부를 위해 한 해 동안 다양한 통역활동을 해왔습니다. 그중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은 베트남 교장단 방문 행사에서 사회와 함께 통역을 동시에 진행한 활동입니다.

지난 7월 25일 베트남 남부지방에 속한 28개의 고등학교에서 온 교장단이 서울여자대학교를 방문하였습니다. 한국 유학 및 서울여자대학교 소개를 위해 미팅과 발표 그리고 각종 질의응답 시간동안 사회자이자 한국어-베트남어 통역사의 역할을 했습니다. 사회와 통역이라는 2가지 역할을 수행해야 했기에 부담도 컸지만, 저의 재능을 통해 양국의 교육적 협력을 발전시키는데 기여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준비했습니다. 또한 베트남 교장단과 유학생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으면서 현재 한국 유학에 대한 장점과 개선사항을 알게 되어, 앞으로 한국어 선생님이로 활동하면서 아이들이 가르칠 때 더 객관적인 관점을 가지고 조언을 해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018년 처음 선발되어, 어느새 3학기 동안 G-Friends 장학생으로 활동하면서 정말 많은 변화를 경험한 것 같습니다. 처음엔 액티비티 활동을 의무적으로 수행했다면, 지금은 제가 원하는 활동을 스스로 찾고 주도적으로 임하면서 2019년은 그 어느 해 보다 제 스스로 '내가 벌써 이렇게나 성장 했구나' 라는 조심스럽게 해봤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다른 G-Friends와 후배 G-Friends를 위해 지금까지처럼 저희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허인
부경대학교



운동으로 극복한 언어장벽 부산 글로벌 대학생 서포터즈

올 한 해 동안 저는 제13기 '부산글로벌서포터즈'로 활동했습니다. 이 활동은 부산에 학업, 취업, 한국정착 등을 목적으로 부산으로 온 외국인 학생과 이주민들이 한국 문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부산 소재 대학생들이 함께 모여 이들을 위한 문화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실제로 지원하는 활동입니다. 처음 G-Friends가 되어 개인 액티비티를 접했을 때, 무슨 활동을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러다 선배 G-Friends 중 1명이 부산글로벌서포터즈로 활동했다는 사례를 듣고, 여기에 참여해 저의 기획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1년간의 활동을 통해 저는 ‘어서와 부산은 처음이지?’, ‘백 투더 부산(Back to the Busan)’, ‘빙수먹고 빙그르르’, ‘Your 유월’ 등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해보면서 다양한 대학생들과 만나 새로운 인연을 만들 수 있었고, 외국인 친구들과 친해질 수 있는 기회도 자연스럽게 가질 수 있었습니다. 특히 외국인 유학생과 이주민들에게 부산을 소개하기 위해 제가 살고 있는 부산이라는 곳의 역사를 공부하고, 실제로 소개해주면서 저의 현 주소를 점검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실제로 적용해보면서, 이론과 현장의 차이가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공부를 더 해 나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계획해 볼 수 있었습니다.

장학금만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지속적으로 만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스스로를 발전시켜 나가는 G-Friends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치영
경희대학교



오리로 전하는 희망

청소년 지역아동센터 사랑나눔행사

안녕하세요, 2019 G-Friends로 선발된 안치영입니다. 저는 G-Friends 액티비티 활동을 위해 제 전공을 살려 지역사회 재능기부활동을 해왔습니다. 현재 저는 약 40명의 셰프로 구성된 ‘열혈팬도’라는 팀에 소속되어 있으며, 각 셰프님들과 함께 주기적으로 팝업레스토랑을 오픈해 운영하고 여기서 창출된 수익을 기부하는 활동을 지속해왔습니다.

특히,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은 다니엘 청소년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해 그곳 학생



들에게 짜장면과 탕수육, 군만두를 요리해주고 세프를 꿈꾸는 학생들에게는 힘이 될 수 있는 조연을 해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니엘 청소년지역아동센터는 저소득층가정의 학생들이 무료로 학업을 배울 수 있는 공간입니다. 한 번의 봉사로 학생들의 배를 채워줄 순 없지만, 먹는 즐거움과 제가 봉사활동을 하는 이유 그리고 저와 같은 꿈을 가진 학생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 싶었습니다. 학생들과 교감하면서 학생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며 단순히 뿌듯한 감정을 넘어, 제가 하는 작은 일이 누군가를 미소 짓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G-Friends가 되기 전까지 팝업레스토랑을 오픈해 얻은 수익금을 기부하는 형태의 활동을 주로 했었지만, G-Friends가 되면서 GKL사회공헌재단에서 장학금만 지원해주는 1회성 지원이 아니라 다양한 개인 액티비티, 팀 액티비티를 통해 G-Friends들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관리해주는 모습을 보며 GKL사회공헌재단이 정말 가까운 곳에서 나랑 함께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본 받아 저도 지속적으로 재능기부를 실천하면서 제 주변의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의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황명화
서강대학교



한국에 스며드는 나를 만나다

한국 문화 탐방 '아우르기' 활동

2019년 저의 개인 액티비티는 기타역량강화 활동으로 GKL사회공헌재단 아우르기 단원으로 활동한 것입니다. SNS를 통해 아우르기를 접하게 되었고, 단원으로 선발되어 1년간 다른 외국인 또는 한국인 단원들과 한국의 유명한 관광지로 문화탐방을 다니고 한국 전통 사물놀이도 배웠습니다. 또한 단순히 한국문화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봉사활동도 함께 진행하면서 한국의 유학생으로 받은 다양한 혜택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한국에 나와 처음 시작하게 된 대회활동이라 너무 궁금하기도 하고, 두려움도 컸습니다. 개인적으로 사람을 만나는 것을 좋아했기 때문에 아우르기 활동을 하면서 여러 나라의 사람들을 만나며 그들의 문화에 대해 듣고, 같은 활동을 하면서 저와 다른 생각을 가진 주변의 여러 의견들을 들으면서 제 식견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사물놀이를 배우고 난 뒤 관객들 앞에서 공연을 하면서 새로운 걸 배우고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의 성취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한강 수질 개선 캠페인에 참여해서 수질 개선을 위한 정보 및 방법들에 대해 배우면서 환경 보호에 대한 의식도 향상시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GKL사회공헌재단의 G-Friends로서 처음 시도했던 대회활동을 통해 제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높아질 수 있었던 2019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의 자신감을 가지고 2020년에는 더 많은 대회활동을 시도해 볼 생각입니다.





연구를 향한 새로운 시각, 발표와 질의응답으로 열리다

세종대학교 학술대회 발표

올 한 해는 저의 연구역량을 높이기 위해 연구를 집중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G-Friends 장학금 덕분에 다른 걱정과 고민 없이 하고 싶은 연구에 집중할 수 있었고, 그 결과로서 세종대학교 학술대회에서 ‘호텔산업에서 기업 규모와 기업 성과의 관계에 대한 이사회 다각화의 조절효과’를 주제로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발표 전 너무 떨리고 긴장되었으나, 막상 발표를 시작하니, 떨림이 사라지고 발표를 잘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발표 후 토론자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면서 끝까지 자신감을 잃지 않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항상 자신감이 부족해 조금 위축된 모습을 보이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번 발표를 계기로 다른 사람 앞에 설 때 제 자신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임하는 법을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언젠, 어디서든, 자신감을 갖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해야겠다는 결심을 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Session 01 -호텔]

■ 장소 : 세

시간	발표 논문	발표	
15:00~ 15:25	호텔 브랜드 앱의 품질과 경제적 혜택이 지각된 가치와 사용자 만족, 지속적 사용의도에 미치는 영향	최주희(경희대) 한진수(경희대)	안영지윤
15:25~ 15:50	조직지원인식의 기대불일치가 조직참목, 직무만족, 경력변화의도에 미치는 영향-외식 프랜차이즈 계약직 종사원을 중심으로	백지현(한양대)	정웅이제
15:50 ~ 16:05 Coffee Break Time			
16:05~ 16:30	호텔산업에서 기업 규모와 기업 성과의 관계에 대한 이사회 다각화의 조절효과	윤유나(경희대) 강경호(경희대)	노선조희
16:30~ 16:55	Accommodation Business in Annapurna Region	우샤포델(세종대) 안영주(세종대)	최현김미
16:55~ 17:20	소비자의 지각된 가치에 따른 온라인 여행사(OTA)에서 호텔 직접예약으로 전환의도에 관한 연구	이근수(경희대) 한진수(경희대)	김경장지



나의 첫 직장생활기

부산 북구 다문화센터 인턴십

작년에 G-Friends로 선발된 이후 벌써 G-Friends 2년차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수역식, 워크샵, 집체교육에 참여해서 다른 장학생들의 액티비티 활동사례를 보면서, 저도 꼭 다른 장학생들처럼 인턴십 프로그램에 지원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으로 다른 그 어느 때보다 열심히 준비를 했고, 최종적으로 부산 북구다문화센터에서 한 달 동안 인턴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직장경험이 전혀 없던 저에게, 매일 8시 30분 출근 - 18시 퇴근은 쉬워 보이면 서도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가장 먼저는 지각하지 않기 위해 평소보다 10분씩 더 일찍 일어났고, 매일 아침 '나는 GKL사회공헌재단의 G-Friends! 할 수 있다'를 외치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특히, 다문화수업을 직접 진행하면서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베트남 문화에 대한 이해를 돕고 다문화가정의 아동들이 한국과 베트남에 대해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우며 지금까지 한국생활 중 가장 큰 보람을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인턴십을 통해 한국의 직장생활과 문화에 대해 배울 수 있었고, 100%는 아니지만 앞으로 다른 어디를 가더라도 이 경험을 살려 잘 해낼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저는 졸업 후 한국에서 취업을 하고자합니다.



G-Friends가 되기 전 아르바이트와 학교수업을 따라가기 바빴던 저에게 G-Friends 장학금은 생활하기에 바빴던 나날을 버리고, 꿈을 위해 앞으로 무엇을 할지 고민할 수 있게 도와준 장학금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한국에 계속 남아있게 된다면, 저도 다른 사람들을 도우면서 살아가겠습니다. GKL사회공헌재단에게 정말 감사드립니다.



김지현
경희대학교



안전한 축제를 위한 바쁜 움직임 2019 펜타포트 락페스티벌 컨디션팅 활동

지프렌즈 액티비티 활동으로 저는 평소 관심 있던 ‘2019 펜타포트 락페스티벌’의 판타락커즈로 참여했습니다. 펜타락커즈는 축제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행사장 전반에서 일하는 자원활동가입니다. 구체적으로 저는 페스티벌 컨디션팅에 속하여 행사장 내 관객 안내 및 통제, 메인 스테이지 관객들의 입·퇴장 관리를 맡았습니다. 자원 활동을 통해 평소 관심있던 축제, 문화 행사의 현장업무를 경험해볼 수 있었고, 특히 다양한 축제 중 개인적으로 생소했던 락페스티벌이 어떻게 진행되고 운영되는지 직접 두 눈으로 확인하면서 정말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의 축제가 제대로 진행되기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일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축제 혹은 행사가 결코 한 사람의 능력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자신들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때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주도적인 태도로 다양한 축제에 참여하면서, 미래의 한국 관광산업의 붐을 일으킬 수 있는 축제를 만드는 기획할 수 있는 전문가가 되기 위해 역량을 키워나갈 예정입니다.



빌리
경희대학교



처음이라 힘들죠? 저도 그랬어요!

외국인학생들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

G-Friends 개인 액티비티 활동으로 저는 교내 외국인 유학생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해 1년간 활동했습니다. 처음 한국으로 유학을 왔을 때, 저는 한국어도 잘 못

했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전혀 없었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이 제가 겪었던 어려움을 겪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멘토가 되기 위해 지원했고, 합격을 하여 한 팀의 담당 멘토가 되었습니다. 정기적으로 멘티들을 만나면서 함께 식사도 하고, 한국생활에 대한 정보들을 제공해주면서 그리고 제가 느꼈던 한국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멘티들의 학교생활 적응을 도와주었습니다. 활동을 하는 동안 저는 멘티들이 '나는 혼자야 아니야, 힘들면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 다 괜찮을 거야'라는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진심으로 도와주었습니다.



멘토로 활동하면서 제가 겪었던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공유하고, 유학생들이 겪고있는 현재의 어려움에 공감해주면서 도울 수 있어 정말 행복하게 활동했습니다. G-Friends 장학금이 저에게 도움을 줬던 것처럼, 그리고 G-Friends가 되어 여러 친구들을 만나며 힘을 얻었던 것처럼 저도 저의 경험을 통해 저의 멘티들이 한국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유학생을 도와주는 일을 계속해나가고 싶습니다.

최소희
부산대학교



MICE산업, 구독경제 박람회로 이끌겠습니다

부산 MICE(Meeting, Incentive tour, Convention, Exhibition) 콘텐츠 공모전 참가

관광컨벤션을 전공하는 학생으로서 저는 제 전공지식을 더 향상시킬 수 있는 활동들을 찾았었습니다. 그러던 중 공모전에 참여해 지금까지 배운 지식을 실제로 제

2019년 G-Friends 팀 액티비티 활동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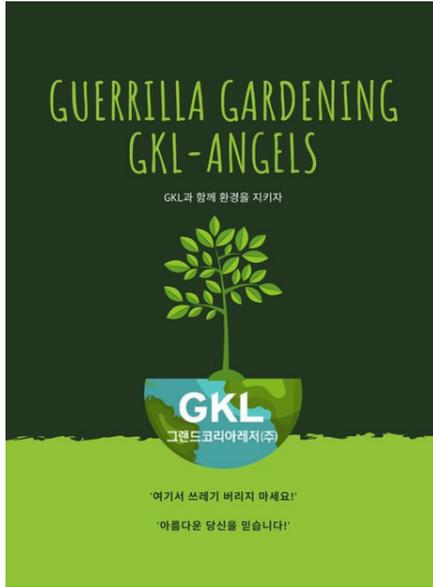
1.조 환경의 지속가능성 보전을 위해 폐화장품을 재활용한 업사이클링 활동 진행



2조 사회적 약자 배려 및 인권보호를 위해 결혼이주여성 회고록 제작

3조 상생과 협력을 위한 외국인 유학생 한국생활 적응 가이드북 개발





경보호
스티 부착

4조 지속가능한 생태계 보전을 위한 게릴라 가드닝 활동 진행



5조 사회적 약자보호를 위한 다문화자녀 수용성 양성 교육 진행

6조 사회적 약자 기회제공을 위한 다문화자녀 언어교육 프로그램 진행



2019년 G-Friends 활동을 마무리하며

홍사희
세종대학교



이번 한 해를 돌아보면 정말 길면서도 짧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대학생생활 끝나가게 둘 순 없다!' 는 생각으로 매일 시간이 가고 있는 것을 실감하며 살았던 한 해였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순간에 G-Friends 장학생이라는 사실과 거기에서 오는 도전, 자긍심, 감사함, 그리고 그만큼 잘 살아야한다는 책임감들 잃지 않으며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제 정체성 중 매우 큰 부분을 차지하는 G-Friends 장학생으로서의 활동을 이제 마치게 된다는 생각에 마음이 너무 허전합니다. 지난 3년 동안 저에게 정말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추억들과 액티비티를 하면서 느꼈던 감동과 뿌듯함, 정말 너무 좋은 사람들과의 만남 등 좋은 기억을 한 가득 담아주신 행운의 산타인 GKL사회공헌재단과 GKL과 그리고 G-Friends 장학생 분들에게 감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Happy New Year! !

강진
성희대학교



G-Friends로서 많은 활동을 하면서 제 자신이 많이 성장한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일도, 공부도, 또 즐기는 일에도 누구보다 뛰어난 많은 친구들을 사귀 수 있었고 이전보다 더 많은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저 스스로가 성장했음을 느낄 수 있는 한 해였고 앞으로도 더 나아가기 위한 다짐과 함께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GKL, GKL사회공헌재단 감사합니다 그리고 수고하셨습니다. 내년에도 잘 부탁드립니다.

권아현
백석대학교



반 학기였지만, 여름부터 G-Friends활동을 하면서 그동안 하지 못했던 다양한 개별 활동들도 할 수 있었고, 조별활동을 통해 좋은 친구들도 많이 만나고, 사회적 가치 실현이라는 뜻 깊은 활동을 할 수 있어서 정말 즐거운 한해를 보냈습니다! ! 꼭 내년에도 계속 G-Friend 활동을 하고 싶습니다.

권해연
성균관대학교



한 학기 동안 논문을 학회에 발표하고, 수업도 열심히 하고, 또 새로운 논문을 시작하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이렇게 학업에 집중할 수 있는 것은 모두 등록금 걱정 없이 학생으로서 마음껏 역량을 표출할 수 있게 해준 GKL과 GKL사회공헌재단 덕분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해 역시 성원에 보답할 수 있게 열심히 살겠습니다.

빅토리아
이화여자대학교



G-Friends 장학금 덕분에 좋은 친구들을 많이 만났고 다양한 사회활동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한 학기 동안 마음 편하게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Merry Christmas Happy New Year! ! !

문석환
동서대학교



대학생활의 끝을 1년간 함께 팀 액티비티를 진행한 우리 조원들과 그리고 다른 여러 G-Friends 장학생들과 함께 마무리 할 수 있어 정말 행복합니다. 지난 1년 동안의 기억이 새록새록 떠올라 입가에 미소가 걸처지네요. G-Friends로 선발된 것은 제 대학 생활 중 최고의 기쁨이었습니다. 학업을 마치고 사회에 나아가서도 G-Friends로 활동했던 기억을 가슴에 새기고 G-Friends 장학생답게 자리 잡아 나가겠습니다. 받은 만큼 더 나누며 살겠습니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김명호
전북대학교



2018년 8월, G-Friends를 시작한 뒤 올해까지 계속 활동을 해왔습니다. 저에게 이런 소중한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9년 GKL과 GKL사회공헌재단 덕분에 행복한 1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한 해 마무리 잘하시고 원하는 일을 모두 이루시길 바랍니다. 저도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고운
단국대학교



GKL사회공헌재단 덕분에 행복한 박사과정을 마쳤습니다. 정말 그 사랑에 대해서 평생 동안 잊어버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GKL사회공헌재단의 많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어 정말 즐거웠고, 특히 꿈희망여행과 팀 액티비티 활동은 저에게 큰 도움이 되는 활동이자, 한국에서의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주었습니다. 'G-Friends 장학금을 받지 못했더라면 제가 정말 박사과정 마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여러 번 했었습니다. G-Friends 장학금 덕분에 다른 누구보다 박사학위논문은 빨리 마무리할 수 있었고, 제가 하고싶은 연구에 전념할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중국으로 돌아가 자리 잡은 후, GKL사회공헌재단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러 꼭 다시 한국에 오겠습니다. GKL, GKL사회공헌재단 그리고 G-Friends, 항상 사랑합니다. 그 감동, 그 사랑, 그 은혜를 평생 기억하고 항상 G-Friends 장학생으로서 열심히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황명화
서강대학교



G-Friends 덕분에 재미, 흥미, 의미 있는 한 해를 보냈습니다.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고 같이 여행을 갔던 경험은 정말 저에게 잊을 수 없는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같은 조 친구들과 보람 있는 프로젝트를 해서 너무 뿌듯합니다. 내년에도 열심히 노력해서 더 많이 사회적 가치를 실천하는데 기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G-Friends와 함께 오래 오래 함께 갈 수 있으면 합니다♥

허요운

성균관대학교



2019년 시작과 마무리를 GKL사회공헌재단 함께하면서 정말 뜻깊은 한 해를 보낸 것 같습니다. 훌륭한 팀원들을 만나서 의미 있는 팀 액티비티 활동도 할 수 있었고, 특히 주변 친구들에게 게릴라 가드닝을 한다고 자랑했더니 멋있다는 칭찬도 많이 받았습니다. 매년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GKL사회공헌재단 사랑합니다. G-Friends♡

이모

서울대학교



1년 반동안 GKL과 GKL사회공헌재단의 지원을 받아 경제부담 없이 공부하고 활동할 수 있었습니다.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처음에 겁도 나고, 걱정도 많았는데 봉환 쌤과 다른 담당자분들이 많이 응원해주셔서 한국에서 무사히 졸업할 수 있었습니다. 좋은 기회와 다양한 활동을 만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른 G-Friends들과 함께 성장하고 노력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GKL, GKL사회공헌재단 사랑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

허인

부경대학교



G-Friends가 되어 한 학기동안 정말 열심히 살 수 있었습니다. 개인 액티비티부터 팀 액티비티까지 다양한 활동을 통해 여러 사람들과 어울리며 긍정적인 에너지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내년에도 졸업하기 전까지 더 열심히 하고, 많은 사람들과 더 좋은 기회를 가지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당티씨 무오이

부산외국어대학교



안녕하세요. 저는 당티씨 무오이입니다♡ 장학금을 받기 위해서 서류를 준비한 게 엇그제 같은데 벌써 1년 반이 지났네요 π.π. GKL사회공헌재단 덕분에 더 편하게 안정인 유학생생활을 할 수 있었고, 다양하고 좋은 활동도 하게 되어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항상 저희 장학생을 위해서 여러 활동도 준비해주시고 고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G-Friends, GKL, GKL사회공헌재단 정말 정말 너무 너무 사랑합니다♡

주연우

경희대학교



올해 유난히도 더웠던 여름에 처음 만나 어색하게 인사를 나누고 서로에 대해 조금씩 알아갔습니다. 그러다가 태안 매화동병마울에서 다시는 만들지 못할 우리들만의 추억을 만들었고, 정말 많은 국가에서 모인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친구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남은 시간 더 많은 추억을 함께 쌓아나가고 싶습니다. 멋진 칭준 G-Friends♡, 끝까지 함께 하자!

마동욱
연세대학교



Thanks to every one who loves me and cares me. I wish you guys have a happy life forever. GKL, GKL사회공헌재단 그리고 G-Friends 모두에게 감사합니다.

주튀휘엔
서울여자대학교



G-Friends 장학생이 된 후에, 그때부터 정말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습니다. 그게 완전히 변해버린 것이 아니고, 다른생각, 또는 다른 자세로 유학생활에 임하면서 새로운 기회를 가질 수 있었고, 예전의 저만의 세계가 아닌 커다라 사회에서 많은 친구들과 사람들과 같이 발전해 나가는 세계로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제게 GKL과 GKL사회공헌재단은 좋은 기회, 좋은 가치관,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으로 계속 기억될 것입니다.

이건
영남대학교



2019년 한 해 동안 GKL사회공헌재단의 지원으로 학업에 열중하는 동시에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활동에 동참 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2020년 더욱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갈 모습이 기대됩니다. 항상 G-Friends로서 자긍심을 갖고 살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쉐쉐아웅
경희대학교



지난 6개월 동안 GKL과 GKL사회공헌재단 덕분에 총 2편의 연구를 발표할 수 있었고, 마음과 관심이 맞는 유학생 및 한국인 학생들과 함께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어서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Happy 2020 Year~

장연주
경희대학교



올 한 해 저는 롤러코스터를 타는 기분이었습니다. 좋았던 때도 있었고, 기뻐던 때도 있었고, 또 힘들 때도 있었습니다. 특히 디즈니 인턴십 준비 때문에 더 그랬는데, 3번의 면접을 하는 한 학기 동안에는 정말 하루에도 몇 번씩 기분이 오르락 내리락 했어요. 그래도 결국 붙었고, 제 자신이 좀 더 나은 사람이구나, 어디가서 비벼볼 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느꼈던 뿌듯한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올 한 해 잘 마무리하고 내년에도 행복하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지프렌즈와 함께! 여러모로 감사합니다. 지프렌즈♡

문우리
한양대학교



올 한 해 동안 G-Friends와 함께 많은 활동을 하며 알차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함께 꿈희망여행을 갔던 날이 가장 기억에 남네요. 내년에도 팀 액티비티 활동과 G-Friends가 모두 모일 수 있는 의미있는 행사가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나를 성장하게 해주는 GKL사회공헌재단과 G-Friends 모두에게 감사합니다. 2020년에도 함께해요♡ 해피뉴이어♡

전혜경
동국대학교



G-Friends장학생으로 선발되어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도전을 했고, 또 그 과정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앞으로도 G-Friends 장학생으로서 더 많은 일에 도전하고 성장하여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GKL & GKL사회공헌재단♡

오정훈
세종대학교



이번에 G-Friends 장학금을 받으면서 대학생생활 중 처음으로 등록금 걱정 없이 학업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 개인적으로 더 발전하는 G-Friends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꾸마리 네하
한국학중앙연구원



GKL, GKL사회공헌재단, G-Friends 감사합니다. 덕분에 하고 싶은 일을 다 할 수 있었습니다. Happy New Year~

안치영
경희대학교



쉽게 접할 수 없었던 많은 경험을 느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팀 액티비티 활동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기위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개인적으로 보람됨을 많이 느꼈고, 다른 사람을 도우며 살아가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함께 살아가는 사회라는 것을 잊지않고, 가치 있는 활동을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익
경희대학교



이번학기 GKL과 GKL사회공헌재단 덕분에 운택하고 풍족한 학기가 되었습니다. G-Friends로 선발되면서 주변 친구들에게 보답도 많이 하고, GKL, GKL사회공헌재단의 좋은 활동과 그 취지를 널리 알릴 수 있었습니다. 모든 분들이 남은 2019년을 행복하고 즐겁게 보내시고, 계획한 것들을 다 잘 마무리하는 한해가 되길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지예화
성균관대학교



벌써 G-Friends로 활동한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시간이 너무 빨리 가네요. 학교생활과 개인 액티비티, 팀 액티비티 그리고 독일 교환학생 준비까지 정말 많은 일들을 하면서 참 뿌듯한 2019년 하반기를 보냈것 같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GKL사회공헌재단의 든든한 후원이 있었기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전에는 할 수 없었던 혹은 몰랐던 여러 사회활동에 참여하면서 다양한 경험과 배움을 얻고, 정말 많은걸 깨닫게 된 알찬 하반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백현기
한양대학교



제게 올 한해 GKL사회공헌재단은 앞만 보고, 나에게만 집중하던 저를 주변을 돌아보게 하는 계기였습니다. 꿈희망여행으로 예쁜 바다를 보며 힐링도 하고, 결혼이주 여성 회고록 액티비티를 통해 사회에 조금이나마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이 제게 정말 큰 행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2019년이 가고 2020년이 오네요. 같은 날들이겠지만, 달력이 바뀌고 새 마음을 다지며 GKL사회공헌재단과 함께 더 성장하는 2020년의 백현기가 응원해주세요.

이용
동국대학교



그동안 GKL사회공헌재단과 선배, 친구 G-Friends 모드들 잘 챙겨주셔서 정말 따뜻한 한 해 보냈습니다. 특히, 매번 의미 있는 자리 만들어 주신 GKL사회공헌재단에게 정말 고맙습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G-Friends 행사가 자꾸만 기다려져요. 장학금만 지원해주고 끝나지 않고 꿈희망여행, 송년회 등 여러 활동을 만들어 장학생끼리 친해질 수 있도록 해주셔서 유학생활이 정말 재밌었어요. GKL파이팅♡ GKL사회공헌재단 파이팅♡ G-Friends 파이팅♡

























